

2024년도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모듈 개발 최종 보고서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광수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목차

I 교과목 개요	01
1. 교과목 개요 및 개발 필요성	01
II 강의 목표	05
III 수업운영방식	06
1. <토론형>	06
2. <자료 독서형>	07
3. <사색형>	08
IV 수업규정	09
1. <토론형>	09
2. <자료 독서형>	10
3. <사색형>	11
V 학습 및 평가활동 내용	11
1. <토론형>	11
2. <자료 독서형>	12
3. <사색형>	13
VI 강의별 세부 계획 및 운영	15
1.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1 : <토론형>	15
2.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2 : <자료 독서형>	19
3.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3 : <사색형>	22
V 학습 및 평가활동 내용	26
참고문헌	30

I | 교과목 개요

1. 교과목 개요 및 개발 필요성

교과목 개요

본 교과에서는 청년세대인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와 국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주체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을 함양하기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고전 텍스트들을 진지하게 읽고, 토론하기, 자료 읽기, 질문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체득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완성해 보도록 한다.

교과목 개발 필요성

■ ‘자기성찰’의 중요성

누구든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아닌 타자와 외부를 판단하는 것만큼 자신을 보기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입장을 아는 것이 모든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기초 역시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대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세가 자기성찰이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던 명제의 본질이 그것이다. 즉, 스스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며 이성적 사고의 필수적 요소이다.

“자기성찰”이란 우리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로 인해 ‘지나간 자신의 일을 회고한다’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오해하기 쉽다. 그런 회고, 반성 역시 자기성찰이나, 본질은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유’이다. 즉, 자신이 인지하는 사고 방식과 과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그 인지 과정을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살펴보면서 그 옳고 그름, 그 정당함과 부당함, 그 진실과 왜곡, 그 근거와 작위 등등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자기성찰’이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메타인지(metacognition)’가 그것이다.

공자가 「논어(論語)」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앎[知]이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고 했던 것 역시 자기성찰과 메타인지를 지칭한 말이다. ‘안다’는 행위나 ‘지식’이란 결과적 상태 등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는 만큼 말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삶과 인생의 자세가 배움과 학문의 시작이 된다는 통찰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려고 하든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일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유보하’든지, 혹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저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기에 전체를 다 규명했다고 할 수 없다’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유의 체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신전에 새겨진 경구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거듭 갈파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를 알라는 이 경구는 스스로의 사유와 앎을 깨우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학문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글쓰기’인가?

‘글쓰기’의 효용과 특징, 장점, 가치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깊이 재론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문자를 발명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글을 쓸 것이란 점이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글쓰기의 가치와 효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글쓰기는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거창한 듯하지만 진실인 명제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각 학문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분과 학문에 따라 조금씩 입장이 다르며 반응 역시 다르다. 즉 학문의 기초라는 명제를 불신하지는 않지만 입장과 온도차가 존재하며, 때론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초보적인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글쓰기’를 단순히 도구적 성격으로만 파악할 때 종종 빚어진다. 즉, 유용하거나 분명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기에 글쓰기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이다. 현실적 효용성이 높은 글을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위대한 창작물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야 글쓰기의 가치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과학 학문을 위한 글쓰기’라든지 ‘창작을 위한 글쓰기’, ‘법조문과 상거래 등을 위한 글쓰기’,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 글쓰기’, ‘창업을 위한 제안서 쓰기’처럼 목표와 결과가 분명해지는 글쓰기가 수행되기도 한다. 이런 글쓰기 역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글쓰기만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글쓰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글쓰기’는 도구이고 기술이나 동시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글쓰기는 ‘인지 과정’을 외현화하여 보여주는 인간이 지닌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역시 그런 중요한 방법이나, 일회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도 다르고, 사유의 방법이 정련되어 나오게 마련인 글쓰기보다 즉자적이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는 사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자신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아가 담기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스스로 그 결과물인 글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 타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본질적 효용을 지니고 있다.

정리하면, ‘글쓰기’의 여러 이유와 목적 효용이 있으나, 그 모든 것에 주목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이다. 즉, ‘자기성찰’의 방법으로서 ‘글쓰기’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신도 모르던, 때론 자신이 간과했던, 폄하하거나 망각하거나 억압했던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인하고 조망하며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글쓰기이다.

글쓰기 과정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이며, 글쓰기 결과는 ‘자신을 자신이 바라보며 확인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글을 쓰기 시작하는 시작은 ‘자신이 자신으로 몰입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했던 메타인지가 가능해지는 출발점이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는 자신에게 몰입해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며, 결국 자신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성찰’을 제공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글쓰는 이가 스스로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되지도 않고, 결과가 도출되지도 않으며 진행되지도 않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될수록 글쓰는 이는 점점 자신에 대해 분명한 상을 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글쓰기’의 핵심은 주체성의 정립과 확인으로, 이는 글쓰는 이가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주제, 어떤 현상, 어떤 방향으로 시선이 향하더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자신의 주체성이 스며들어 남기 마련이다.

이런 ‘글쓰기’를 시선과 초점이 외부와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인 ‘성찰’로 돌려 진행된다면, 그 성찰적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 ‘고전’이어야 하는 이유는?

고전이 지닌 특징이 본 교과와 목적인 ‘자기성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인데, 고전의 가치와 특징이 자기성찰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전의 가치는 첫째로 총체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전은 단순한 하나의 가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단편적이거나 평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총체적 삶의 실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고전을 읽고 경험함으로써 그 총체적 삶과 가치와 지향을 체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진행된다.

둘째,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고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이유는 고전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당대에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그중 지금의 고전보다 더 많이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주목하지 않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인간다움’이란 것에 얼마나 빽빽하게 접근했느냐의 차이에 있다. 즉, 고전은 단순한 이야기나 단편적 교훈, 삶의 지침 정도 이상의 인간다움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본질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셋째로, 그렇기에 고전은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주는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고전 읽기를 통해 고전을 이해하며 고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주는 것이 고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 읽기를 통해 자아성찰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 ‘어떤 고전’이어야 하는가?

본 교과와 목적인 ‘자기성찰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고전을 이해하고 해독하고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수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고전 중에서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첫째, 담론화된 고전보다는 과정 중심의 고전을 선택한다.

담론화된 고전은 이미 결정적으로 고정되기 쉽다. 즉, 그 고전의 가치가 옳지 않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과 같은 고전 작품은 그 자체로 고정된 도그마적 가치를 담고 있기에, 해석자(여기서는 학생 독자)의 고민과 사유가 끼어들 여지가 훨씬 적다. 또한 결과를 이해하고 익히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체득되기 쉽지 않고,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런 가치 담론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부와 지식과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 중에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 동참하기 쉬운 소설 등과 같은 서사적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작품을 선정한다.

<파우스트>, <데미안> 등 역시 훌륭한 작품이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손쉽게 접근하기에 저어됨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본 교과와 목적인 동서양 고전에 대한 이해나 감상, 분석이 아닌 고전을 통한 자기성찰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구체화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 별 부담 없이 그리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들어 보았을 <춘향전>, <홍길동전> 등과 같은 작품이 좋다. 즉, 한국 고전 작품이 좋다.

한국 고전이 학습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고 교수자들 역시 익숙하기 때문이다. 외국 문학 작품 역시 좋으나, 친밀감에서 같은 문화권 같은 삶과 역사를 공유한 우리 작품보다는 상대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작품들은 특별한 분석이나 고민 없이도 쉽게 인지되고 스며들기에 공감과 몰입이 훨씬

쉽다. 거듭 말하지만, 고전을 공부하거나 고전을 이해하거나 고전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전을 통해 자기성찰 글쓰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기를 성찰하고 그것을 객관적 행동인 글쓰기를 통해 외부와 소통을 시도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실제로는 해당 작품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 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는 자신이 자신이기에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자신을 조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즉, 스스로 주체에 대한 완벽한 객관성을 담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선정할 경우, 그 작품을 익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읽고 이해하는 동안에 객관적인 발견이 가능하고, 그런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한 발견의 과정과 기쁨과 놀라움이, 그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에 대한 객관적 발견의 과정과 기쁨의 놀라움 과정과 중첩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다섯째,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교과 목적에 더 효율적이다.

한국 고전 작품 중 <심생>과 같은 짧은 한문단편들 역시 서사적으로 유용하나, 그 작품이 인생이 한 단면만을 조명한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측면을 조망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국,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처럼 누구든 쉽게 접하기 좋고 또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 과제의 목적은 ‘자기성찰’이고, 이를 구체화시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고백과 지향의 글쓰기’란 점을 교과목 운영 내내 유념해야 한다.

■ ‘소설’의 가치는?

소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영화와 드라마는 몰입하지 않아도 서사가 진행하고 흘러간다. 그래서 쉽게 분석하고 검열하는 시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실 최근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영화와 드라마에 몰입보다는 판단하고 검열하는 식으로 체험한다.

그런데, 소설은 필수적으로 등장인물에 그리고 그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서는 서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몰입이 끊어진다면 그 순간 서사의 진행이 멈추기 때문이다. 소설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즉, 소설은 ‘자신이 아닌 남이 되어 보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남의 마음과 상황을 경험, 체험하는 것에 있다. 훌륭한 소설의 좋은 독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주체로서의 새롭고 다른 경험을 충실히 해보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며, 그 과정에서 이해되고 체험된 것을 통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소설의 가장 중요한 효용이자 소설의 소설다움이다.

정리하면, 소설을 읽는 과정은 ‘자기 객관화’, ‘몰입’, ‘남이 되어 보는 경험’이며, 이런 자기 객관화, 몰입, 남이 되어 보는 경험이 주체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큰 효용이 있다. 이는 결국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능력과 통하게 되며, 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자기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존재 근거와 그 이유와 존재 방식의 차이를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그 가치 지향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사유하는 반복적 성찰 과정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이는 메타인지를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 현 우리 사회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 상황은 어째가 있지만 우리다운 문화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야 할 가치와 기준, 지향하고 싶은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상은 일종의 아노미 상태이지만 학습자들인 청년 세대는 이 혼란 상황이 무엇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노미라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현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있다.

이전 문화가 좋은지 나쁜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여 발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개인적 취향과 판단에 따른 즉물적, 즉흥적 가치판단이 팽배하게 되면서, 근본적 가치와 기준, 의미 지향 등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 자연주의적 결정론과 쾌락주의, 권력의지(Der Wille zur Macht)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 상황은 학습자인 청년세대의 어리석음이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거나 부족하기에 초래된 상황이다. 자기성찰이 학문은 물론이고 삶과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자 기초이기 때문이다. 어떤 삶,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선택하고 지향하든, 중요한 시작은 청년세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와 조응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성찰과 지향은 외적인 이론과 주입을 통한 올바른의 적용이 아닌,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유한 선택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이다.

II | 강의 목표

■ 학습자들이 고전 읽기를 통해 자기성찰에 이르게 한다.

- 고전 인물 분석을 통해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을 이해한다.
- 여러 방법으로 읽어낸 고전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상황의 총체적 상황을 체득하게 한다.
- 이를 통해 자신을 주체적으로 돌아보고 타자의 가치를 확인하게 한다.

■ 인물 분석과 자기성찰의 과정으로써 ‘토론하기’, ‘자료 읽기’, ‘질문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고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프로필화 함으로써 인물(자아)에 대한 객관화 과정을 연습한다.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해 자기성찰의 과정을 이해한다.
-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정립하도록 한다.

■ 자기성찰의 결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 자신을 주체적으로 돌아보고 타자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자신과 타자의 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상을 형성할 수 있다.
- 반복적 성찰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 수업운영방식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성찰’으로, 그 성찰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수업 결과인 ‘자기성찰 글쓰기’라는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기성찰’의 과정 역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자기성찰’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토론하기’, ‘자료 읽기’, ‘질문하기’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수업 운영을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런 유형 선택은 학습자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1. <토론형>

1) 수업 적용 가능 학습 단위

■ 다음 경우 채택해 볼 수 있다.

- 학습자들의 능동적 자발성이 낮은 경우
- 일반적 수준의 읽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
- 여타 사정으로 고전 텍스트를 제대로 독해하기 어려운 경우
- 활동성이 높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

■ 학습 단위 인원

- 대규모 분반도 가능하나 소규모 분반이 유리하다.
- 소규모 분반이라 하더라도, 조별 토론은 5명을 넘지 않도록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

2) 수업의 특징

■ 특징점

-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먼저 탐색한 인물들을 가지고 다른 학습자들이 탐색한 인물들과 함께 토론하며 비교 대조한다.
- 이를 통해 주체와 타자, 대상과 또 다른 대상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즉, 자신과 다른 조원이 각기 다른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비슷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 생각과 차이의 간극을 이해하게 된다.
- 나아가 여러 학습자들이 선정한 인물들의 다양성을 확인하면서, 인물과 인물이 놓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부여에 따른 ‘의미 부여’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 궁극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차이’와 ‘간극’이 괴리나 오류가 아닌 ‘다름’과 ‘선택의 의미 부여’임을 학습자들이 체득하게 된다.

■ 주의점

-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그러므로 '토론'이란 집단 활동을 하나, 이 활동에 과도한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 궁극적으로 활동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조별' 활동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3) 수업의 구성

■ 반영비율 (%)

강의	고전 읽기	토론(개인/조별/게시판)	자기성찰 글쓰기
10	30	30	30

* 교수자의 강의는 직접적이지 않게 전체적 방향을 이끄는 방식이어야 한다.

2. <자료 독서형>

1) 수업 적용 가능 학습 단위

■ 다음 경우 채택해 볼 수 있다.

- 학습자들의 자발성은 있으나 작품 이해 방법에 획일성이 높은 경우
- 총체적, 통찰적 사고보다는 평면적, 일반적 사고에 익숙한 경우
- 고전 텍스트를 제대로 독해하기 어려운 경우

■ 학습 단위 인원

- 개인별 활동이기에 인원 제한은 없다.
- 다만, 대규모 분반일수록 학습자들의 안정감이 낮아지고 대중 속에 매몰되어 가는 일반적 성향을 보일 수 있기에, 가급적 소규모 분반이 효율적이다.

2) 수업의 특징

■ 특징점

- 학습자가 인물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찾아보는 과정이 선행하기에 선입견이나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 이를 통해 단순히 주인공이거나 유명한 인물이기에 막연히 선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분명한 이유에 따라 해당 인물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즉, 동일한 주인공을 선정한다 해도, 그 주인공을 선정한 이유와 바라보는 방식이 상이해질 수밖에 없기에 자기성찰에 효과적이다.
- 결국 하나의 인물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체득하게 되고, 하나의 인물이 궁극적으로 입체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단순한 선악이나 호오의 판단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 궁극적으로 본 활동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인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을 단순한 평면적 의미화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적극적 자아상을 획득하고 체득하게 된다.

■ 주의점

-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그러므로 누군가가 의미화 해낸 '2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당 시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활동은 정답은 없고, 단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주체적 시각에 따라 이루어짐을 분명히 인지하게 해야 한다.

3) 수업의 구성

■ 반영비율 (%)

강의	고전 읽기	2차 자료 독서 활동	자기성찰 글쓰기
10	30	30	30

* 교수자의 강의는 직접적이지 않게 전체적 방향을 이끄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사색형>

1) 수업 적용 가능 학습 단위

■ 다음 경우 채택해 볼 수 있다.

- 학습자들의 능동적 자발성이 높은 경우
- 일반적 수준의 읽기에 어려움이 없고 자기 의견 피력에 적극적인 경우
-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활동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

■ 학습 단위 인원

- 대규모 분반도 가능하나 소규모 분반이 유리하다.
- 소규모 분반이라 하더라도, 조별 토론은 5명을 넘지 않도록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

2) 수업의 특징

■ 특징점

- 학습자가 모든 과정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 학습자가 모든 과정에 타인의 시선이나, 타자의 감각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기에 '자기성찰'이란 목표에 순수하게 도달하기 쉽다.
- 결과인 '자기성찰 글쓰기'의 내용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반추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적극적 주체성과 자아상을 확립하기에 유효하다.

■ 주의점

- 학습자가 피상적으로 단순한 회고나 감상에 그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기에 학습자 개인적 자질과 상황에 따라 그 결과와 효과가 유동적일 수 있다.

3) 수업의 구성

■ 반영비율 (%)

강의	고전 읽기	질문하기 활동	자기성찰 글쓰기
10	30	30	30

* 교수자의 강의는 직접적이지 않게 전체적 방향을 이끄는 방식이어야 한다.
(** 자세한 구체적 방법은 'IV.수업규정', 'V. 학습 및 평가활동 내용' 참조)

IV | 수업규정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교과 운영을 세 유형으로 구분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각기 유의점이 있다.

1. <토론형>

1) 교수자의 유의점

- 교수자는 다양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수는 있으나, 필수적이지는 않다.
- 가치평가나 편향이 들어간 어휘와 언급을 지양해야 한다.
-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 학습자와 함께 고전 작품을 읽어서는 안 되며, 토론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방향을 잡고 핵심에 접근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2) 수업 과정에서의 유의점

- 학습자 스스로 '토론' 이전에 먼저 '인물 탐색'을 하게 해야 한다.
- 즉,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먼저 탐색한 인물들을 가지고 다른 학습자들이 탐색한 인물들을 놓고 함께 토론하며 비교 대조하면서 타자와 주체, 대상과 또 다른 대상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토론형>의 핵심 관건이다.
- 학습자가 '작품 읽기'나 '인물 탐색' 등을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i) 특정한 학습자의 발언이나 생각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음
- ii) 자신이 지니고 있던 선입견에 따른 인물 선정이 이루어져 사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결국, 궁극적으로 본 교과가 꾀하는 자기성찰 효과가 일어나기 어렵다.
- 그러므로, 학습자가 '작품 읽기'와 '인물 탐색'을 반드시 '토론' 이전에 선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유념해서 조치해야 한다.
- 결코, '고전 이해와 감상' 등으로 흐르게 해서 안 된다.

3) 수업 결과 및 평가에서의 유의점

- 궁극적으로 '자기성찰'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 학습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성찰 및 활동의 적절성 유무를 자신이 받게 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러므로 평가는 분명하게 명징한 사항들에서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지표 참조)

2. <자료 독서형>

1) 교수자의 유의점

- 교수자는 반드시 복수의 2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2차 자료는 과도한 가치평가나 편향이 들어간 자료는 지양해야 한다.
- 2차 자료는 과도한 분량이거나 난해한 내용, 논문 등은 지양해야 한다.
- 2차 자료를 통해 고전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기성찰을 위한 다양한 시각 확보가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수업 과정에서의 유의점

- 학습자 스스로 '2차 자료를 읽음'함으로써 '인물 탐색'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즉, 학습자가 자료를 독서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인물 탐색을 위한 방법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결국, 다양한 인물이 존재하고 다양한 인물을 바라보는 중층적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결코, '고전 이해와 감상' 등으로 흐르게 해서 안 된다.

3) 수업 결과 및 평가에서의 유의점

- 궁극적으로 '자기성찰'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 2차 자료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그 시각을 답습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강조해야 한다.
- 학습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성찰 및 활동의 적절성 유무를 자신이 받게 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러므로 평가는 분명하게 명징한 사항들에서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지표 참조)

3. <사색형>

1) 교수자의 유의점

- 교수자는 고전 작품에 대한 몰이해나 오독을 우려하여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방향을 잡고 핵심에 접근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2) 수업 과정에서의 유의점

- 학습자 스스로 고전 텍스트를 읽고 사유하고 사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사유와 사색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읽은 고전 작품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의한다.
- 스스로를 마주하기 어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외적 타자와 대상에 대한 분석에만 경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결코, '고전 이해와 감상' 등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3) 수업 결과 및 평가에서의 유의점

- 궁극적으로 '자기성찰'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 학습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성찰 및 활동의 적절성 유무를 자신이 받게 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러므로 평가는 분명하게 명징한 사항들에서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지표 참조)

V | 학습 및 평가활동 내용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세 유형에 따른 평가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토론형>

■ 반영비율 (%)

고전 텍스트 읽기	토론문 작성 / 토론 참여	자기성찰 글쓰기 제출	출석 및 참여도 기타
20	30	40	10

■ '고전 텍스트 읽기' 평가

- 간단한 퀴즈 실시 : 단답형 5문제 이내
- 2분 발표 or 쪽글 제출 : 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 ‘토론문 작성 / 토론 참여’ 평가

- 토론문 작성 제출 : 도식적이지 않은 주체적 내용 포함 유무
- 토론 참여 : 발언 횟수, 질문 및 반박 횟수 ; 게시판 댓글 횟수

■ ‘자기성찰 글쓰기’ 평가

- 고전 인물 분석 내용의 구체성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 글의 ‘제목’의 적절성 (*반드시 글에 제목을 쓰게 한다)

■ 평가척도

- 본질적으로 ‘자기성찰’이 중요하기에 ‘제출/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음
- 그러므로 ‘미제출/결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점수를 부여함
- 평가는 ‘활동’과 ‘결과물’로 나뉘 ‘상·중·하’로만 함

활동(①+②)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①고전 텍스트 읽기		나름의 시각으로 읽어냈음	평이한 이해임	제출했음	미제출
②토론문 작성/토론 참여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적극적임	긍정적으로 참여함	제출했음	미제출/결석
결과물(③)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③ 자기성찰 글쓰기	자기 성찰	• 고전 인물 분석과 내용의 구체성			미제출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글쓰기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글 ‘제목’의 적절성			

2. <자료 독서형>

■ 반영비율 (%)

고전 텍스트 읽기	아이디어 노트 작성	자기성찰 글쓰기 작성	출석 및 참여도 기타
20	30	40	10

■ ‘고전 텍스트 읽기’ 평가

- 간단한 퀴즈 실시 : 단답형 5문제 이내
- 2분 발표 : 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 ‘아이디어 노트 작성’ 평가

- 아이디어 노트의 분량 : 20회를 기준으로 이상 이하 평가
- 아이디어 노트의 지속성 : 노트 메모 날짜 확인을 통한 지속적 사유 시간 확인

■ ‘자기성찰 글쓰기’ 평가

- 고전 인물 분석 내용의 구체성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 글의 ‘제목’의 적절성 (*반드시 글에 제목을 쓰게 한다)

■ 평가척도

- 본질적으로 ‘자기성찰’이 중요하기에 ‘제출/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음
- 그러므로 ‘미제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점수를 부여함
- 평가는 ‘활동’과 ‘결과물’로 나뉘 ‘상·중·하’로만 함

활동(①+②)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①고전 텍스트 읽기		나름의 시각으로 읽어냈음	평이한 이해임	제출했음	미제출
②아이디어 노트 작성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많은 아이디어 집적함	짧은 시간 소략한 아이디어 제출	제출했음	미제출/결석
결과물(③)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③ 자기성찰 글쓰기	자기 성찰	• 고전 인물 분석과 내용의 구체성			미제출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글쓰기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글 ‘제목’의 적절성			

3. <사색형>

■ 반영비율 (%)

고전 텍스트 읽기	질문하기 및 답변 작성	자기성찰 글쓰기 작성	출석 및 참여도 기타
20	30	40	10

■ ‘고전 텍스트 읽기’ 평가

- 간단한 퀴즈 실시 : 단답형 5문제 이내
- 2분 발표 : 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 ‘질문하기 및 답변하기’ 평가

- 질문하기 : 5개 이상의 질문 유무
- 답변하기 : 질문에 대한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 횟수

■ ‘자기성찰 글쓰기’ 평가

- 고전 인물 분석 내용의 구체성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 글의 ‘제목’의 적절성 (*반드시 글에 제목을 쓰게 한다)

■ 평가척도

- 본질적으로 ‘자기성찰’이 중요하기에 ‘제출/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음.
- 그러므로 ‘미제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점수를 부여함.
- 평가는 ‘활동’과 ‘결과물’로 나눠 ‘상·중·하’로만 함.

활동(①+②)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①고전 텍스트 읽기		나름의 시각으로 읽어냄	평이한 이해임	제출했음	미제출
②질문하기-답변하기		질문 횟수와 답변 횟수가 많음	소략한 질문과 답변이 피상적임	제출했음	미제출/결석
결과물(③)		아주 훌륭함(상)	훌륭함(중)	좋음(하)	노력이 필요함
③ 자기성찰 글쓰기	자기 성찰	• 고전 인물 분석과 내용의 구체성			미제출
		•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비판적 적합성			
		• 자기성찰의 호소력과 설득력			
	글쓰기	• 내용의 일관성과 글의 체계성			
		• 글 ‘제목’의 적절성			

VI | 강의별 세부 계획 및 운영

1.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 <토론형>

강의 계획 및 운영	
주교재 (고전 제목)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을 시도한다. 다양한 토론을 통해 자기와 타자를 이해하고 성찰한다. 자기성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주요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인물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을 선정한다. 해당 인물의 삶을 프로파일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인물의 삶을 구체화한다. 해당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수행한 모든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은 다음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① 작품 읽기 - ② 인물 탐색 - ③ 토론 - ④ 인물 선정 - ⑤ 인물의 삶 정리 - ⑥ 자기 생각 정리 - ⑦ 자기성찰 글쓰기 </div> 세부 활동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읽기 : 작품을 읽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단위 수행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의 어떤 판본이든 상관없다. 평가를 위하여 다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생략도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퀴즈 실시(단답형 5문제 이내) 2분 발표(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or 쪽글 제출) 인물 탐색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단위 수행 학습자 개인이 작품 속에 인물을 적어도 '5명 이상' 찾아 제출하게 한다. 이를 학습 시간에 전체 단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앞에 전부 적도록 한다. 관건은 '최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예시: <춘향전>의 경우 : 춘향, 변학도, 이몽룡, 월매, 향단, 방자, 포졸, 심부름꾼, 마을 사람들 ... <홍길동전>의 경우 : 홍길동, 흥판서, 흥판서 부인, 흥판서의 장자, 춘섬, 곡산모 초란, 자객, 포도대장, 임금, 활빈당 출개, 마을 사람들 ... <흥부전>의 경우 : 부, 놀부, 놀부 처, 흥부 처, 흥부 자식들, 동네 사람들, 사또, 제비, 박에서 나온 사람들 ... </div> 토론 :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자가 화제를 제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가장 행복한 인물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가장 불쌍한 인물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 조별로 학습자들이 '특정 인물'을 정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고

강의 계획 및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학습자들이 '여러 인물'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산발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다. - 관건은 토론 결과를 조원 모두가 '각자 적어 제출'하게 한다. - 이를 통해, 토론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라도 능동적으로 해당 토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사유가 제시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토론 방법 3가지 참조) <p>(4) 인물 선정 : 찾아진 인물들 중에서 학습자 스스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가 여러 명을 선정하겠다고 할 경우, "더 맘에 끌리는 인물을 고르라"는 식으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 - 복수의 인물을 고를 경우, 학습자의 내면은 빠지고, 그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만을 도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활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 그러므로 반드시 '한 명'을 고르게 한다. <p>(5) 인물의 삶 정리 : 그 인물의 '육망', '소신', '의지', '삶의 자세', '행동의 이유와 근거', '인생의 가치와 지향' 등 그의 삶을 정리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문장식, 혹은 개조식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프로필화를 시도한다. <p>(6) 자기 생각 정리 : 앞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자기 생각'과 '그 인물의 삶에 대한 감상'을 적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이때는 반드시 문장으로 서술식 글로 적도록 한다. - 끊어지는 방식의 단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글들이 결국 최종적인 '자기성찰 글쓰기'에 담기게 되며, 비록 해당 글을 그대로 담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생각은 충분히 담김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인지시킨다. - 자기 생각 정리가 어려워하는 경우, 교수자가 깊이 간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질문 형식의 도움을 줄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예시 :</p> <p>"만약, 당신이 그 ~~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p> <p>"만약, 당신이 그 ~~에게 조언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만약, 당신이 그 ~~이/가 처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div> <p>(7) 자기성찰 글쓰기 : 앞서 수행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깨달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기성찰 글쓰기'를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는 "앞서 수행한 모든 것을 담으려 하지 말라"는 권유를 해야 하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깊이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준다. - 작성 시간과 작성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만, 너무 적은 분량은 피상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하한선만 제시한다.
	<p>수업자료</p>
<p>과제</p>	<p>① 고전 텍스트 읽기</p> <p>② 토론문 작성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다수'의 토론 경우 : 자기 의견 토론문 - '조별 대항' 토론의 경우 : 토론 결과 정리글 - '게시판 발표' 토론의 경우 : 게시판 발표 토론문 <p>③ 자기성찰 글쓰기 제출</p>

<토론형>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방법 : 토론 방법 3가지

<토론형>은 토론을 통해 자신과 타자의 사유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문제이며, 사유의 기초임을 스스로 깨닫고 체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활용할 수 있는 토론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이다.

* 어떤 방법이든 학습자는 반드시 '토론문'을 작성해서 임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방법1: '개인과 다수'의 토론

일반적인 조별 토론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로 운영이 가능하다.

- (1)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조원들이 해당 학습자에게 질문하며 토론하는 방식
 - 학습자 개인이 자기 의견을 간략하게 적어 준비하고, 이를 소그룹 안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식 토론을 진행한다.
 - 이 경우 모든 학습자가 돌아가며 자신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문이 진행되기에 주체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다.
 - 다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 토론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 (2) 조원들이 일대일, 일대다 방식으로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
 - 다만, 특정 생각, 특정 인물의 주장에 휩쓸릴 우려도 있다.
 -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수용의 가능성이 있다.
 - 준비하지 않고 토론에 임할 수 있다.
 - 효과적일 경우,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임하기에 토론의 효과가 가장 크다.

2) 방법2: '조별 대항' 토론

학습자가 속한 조 안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 구성된 조끼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로 운영이 가능하다.

- (1) 조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방식
 - 소규모의 조원들이 서로 공유한 내용을 통해 조별끼리 토론을 실시한다.
 - 장점은 학습자가 속한 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스스로 자신이 낸 의견의 타당성을 심정적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반박된다 해도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심정적 여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견 제시에 적극적일 수 있다.
 - 토론 진행과 결과를 모든 학습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출하게 한다. (*자신의 토론문 + 조별 토론문)
- (2) 조별로 모든 학습자들이 상대 조와 토론하는 방식
 - 조원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조원들과 함께 하기에 자기 확신과 주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
 - 단점은 소극적으로 임해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도 자신의 그룹 안에 잠겨들 수 있다.
 - 토론 진행과 결과를 모든 학습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출하게 한다. (*자신의 토론문 + 조별 토론문)

3) 방법3: '게시판 발표' 토론

교과목 오픈 사이트에 각 학습자들이 일정 분량 이상의 토론문을 올려 게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A4 반 정도 분량이 적당하다)

(1) 토론 방법

① 학습자가 토론문을 작성하여 오픈 사이트에 게시한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교수자가 문제를 설정할 수 있고 (*춘향은 열녀인가? / 홍길동은 영웅인가? 등)

ii) 읽은 고전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설정해' 그에 대한 의견문을 올릴 수 있고

iii) 읽은 고전에 대한 '독후감적 성격의 단순한 감정과 사유'를 올릴 수도 있다.

- 이 토론문은 고전에 대한 정답 찾거나, 분석이 목적이 아니고 다양한 토론을 위한 자기 의견 제시이므로 꼭 심각하고 분석적일 필요는 없다.

②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토론 게시물들을 모두 읽어보고, 댓글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문에 대한 댓글은 '좋아요', '잘 읽었어요' 등의 단순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이어야 한다.

-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을 제외하고, 타자의 토론문에 의무적으로 특정 횟수 이상의 댓글을 달도록 교수자가 조치한다. (*최소 3회, 혹은 5회 하는 식 / '댓글을 단 횟수에 따른 점수 부여' 등의 방식)

③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 토론문에 대한 댓글과 그에 대해 다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 학습자는 적어도 자신이 게시한 토론문에 대한 댓글에는 '반드시 대댓글을 달도록' 한다.

(2) 토론 활성화 방법

- 학습자가 게시한 토론문에 전혀 댓글이 없을 경우나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게시물에 최초 댓글을 단 학습자에게 가중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한다.

- 이를 통해, 모든 학습자의 게시물에 반드시 댓글이 달리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교수자가 댓글을 다는 방식도 고려해 본다. (*이때 교수는 강한 어조와 확신의 내용이 아닌 권유 방식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

- 평가는 '토론문 1차 게시'를 점수화하고, 읽고 댓글과 대댓글을 다는 횟수에 따라 점수화 한다.

(3) '게시판 발표' 토론의 장점

- 자신의 의견을 미리 한번 '토론문'으로 정리해 본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는 최종 결과로 제출할 '자기성찰 글쓰기'의 연습이 될 수 있다.

- 타인의 직접적인 말과 상황에 따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문을 작성하기에, 토론에서 불필요한 압박이나 암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천천히 자신의 호흡과 리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게시된 토론문을 읽고 숙고하며 그들의 생각을 사유해 볼 여지가 있다.

- 현장 토론은 소극적이거나 비자발적이어도 넘어갈 수 있으나, 게시판 발표 토론은 반드시 1회 이상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게시할 수밖에 없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2.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2: <자료 독서형>

강의 계획 및 운영	
주교재 (고전 제목)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을 시도한다. 다양한 자료 읽기를 통해 자기와 타자를 이해하고 성찰한다. 자기성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주요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인물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양한 2차 자료들을 독서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을 선정한다. 해당 인물의 삶을 프로파일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인물의 삶을 구체화한다. 해당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수행한 모든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은 다음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① 작품 읽기 - ② 2차 자료 읽기 - ③ 인물 탐색 - ④ 인물 선정 - ⑤ 인물의 삶 정리 - ⑥ 자기 생각 정리 - ⑦ 자기성찰 글쓰기 </div> 세부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 읽기 : 작품을 읽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의 어떤 판본이든 상관없다. - 평가를 위하여 다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생략도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단한 퀴즈 실시(단답형 5문제 이내) ② 2분 발표(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or 쪽글 제출) (2) 2차 자료 읽기 : 해당 고전 작품에 관해 풀이·설명한 2차 자료를 찾아 읽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교수자는 해당 2차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한다. - 교수자는 "해당 설명과 분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참고해 보라"는 알림을 반드시 한다. - 교수자는 절대로 해당 작품에 대해 강의해서는 안 된다. 강의를 할 경우 학습자들의 사고와 지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또한, 교수자의 의견을 학습할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여 자기성찰이 아닌 문학 비평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관건은 이렇게 2차 자료를 찾아 읽은 결과를 학습자 모두가 '각자 적어 제출'하게 한다. - 이를 통해, 다양한 인물을 도출하게 되고 그 인물과 처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며, 이런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3) 인물 탐색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 개인이 작품 속에 인물을 적어도 '5명 이상' 찾아 제출하게 한다. - 이를 학습 시간에 전체 단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앞에 전부 적도록 한다. - 관건은 '최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강의 계획 및 운영

<p>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예시: <춘향전>의 경우 : 춘향, 변학도, 이몽룡, 월매, 향단, 방자, 포졸, 심부름꾼, 마을 사람들 ... <홍길동전>의 경우 : 홍길동, 흥판서, 흥판서 부인, 흥판서의 장자, 춘섬, 곡산모 초란, 자객, 포도대장, 임금, 활빈당 줄개, 마을 사람들 ... <흥부전>의 경우 : 부, 놀부, 놀부 처, 흥부 처, 흥부 자식들, 동네 사람들, 사또, 제비, 박에서 나온 사람들...</p> </div> <p>(4) 인물 선정 : 찾아진 인물들 중에서 학습자 스스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가 여러 명을 선정하겠다고 할 경우, "더 맘에 끌리는 인물을 고르라"는 식으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 - 복수의 인물을 고를 경우, 학습자의 내면은 빠지고, 그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만을 도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활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 그러므로 반드시 '한 명'을 고르게 한다. <p>(5) 인물의 삶 정리 : 그 인물의 '욕망', '소신', '의지', '삶의 자세', '행동의 이유와 근거', '인생의 가치와 지향' 등 그의 삶을 정리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문장식, 혹은 개조식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프로필화를 시도한다. <p>(6) 자기 생각 정리 : 앞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자기 생각'과 '그 인물의 삶에 대한 감상'을 적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이때는 반드시 문장으로 서술식 글로 적도록 한다. - 끊어지는 방식의 단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글들이 결국 최종적인 '자기성찰 글쓰기'에 담기게 되며, 비록 해당 글을 그대로 담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생각은 충분히 담김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인지시킨다. - 자기 생각 정리가 어려워 하는 경우, 교수자가 깊이 간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질문 형식의 도움을 줄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 : "만약, 당신이 그 ~~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 ~~에게 조언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그 ~~이/가 처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div> <p>(7) 자기성찰 글쓰기 : 앞서 수행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깨달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기성찰 글쓰기'를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는 "앞서 수행한 모든 것을 담으려 하지 말라"는 권유를 해야 하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깊이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준다. - 작성 시간과 작성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만, 너무 적은 분량은 피상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하한선만 제시한다.
	<p>수업자료</p>
<p>과제</p>	<p>① 고전 텍스트 읽기 ② 아이디어 노트 작성 제출 - 아이디어의 내용보다는 많은 '양'을 집적하게 한다. - 특정 시간에 몰려서 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조금씩 작성하게 한다. ③ 자기성찰 글쓰기 제출</p>

<자료 독서형>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방법 : 아이디어 노트

<자료 독서형>은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타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 상대적 거리를 두고 그 의견을 따르거나 비판·대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은 ‘아이디어 노트’를 적는 방법이다.

1) 아이디어 노트 작성 방법

(1) 특정 노트를 준비하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 고전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단상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 넣게 한다.
- 2차 자료를 읽고 그 의견을 정리하거나, 2차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사진, 그림의 방식 역시 유효하나, 그림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 이는 고전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듯 하면 된다.
- 컴퓨터 파일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가 아닌 실물 노트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심리적 효과와 교육적 이유는 분명하나, 설명은 생략한다.

(2)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수시로 적게 한다.

- 노트를 늘 소지 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다양한 종이나 쪽지에 적은 후 오려서 노트에 부착하여 하나의 파일이 되도록 한다.
- 중요한 점은 ‘하나의 노트’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쌓이게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스스로 혼자 자료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충돌하고 지향이 엇갈리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이는 궁극적으로 차이와 간극을 이해하고, 다양성과 사유의 자유로움을 학습자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3) 자기성찰 글쓰기에 유효한 자료집이 된다.

- 현재 학습자가 스스로 주목하고 있는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위한 목적과 의도에 따른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기에 최종 결과물 제출에 유효하다.
- 또한, 아이디어 노트를 적으므로써 학습자 스스로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자기 사유와 성찰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 언제 어느 때든 불쑥 떠오르는 자신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사유하게 된다.
- 궁극적으로 결국 사유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유발하고, 실제로 결과물인 ‘자기성찰 글쓰기’를 위한 예비적 글쓰기 연습이 되며, 예비적 글쓰기 자료가 된다.
- 더욱, 아이디어 노트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사유의 과정을 회고하고 확인·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사유했던 이유와 의미를 추체험함으로써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2) 아이디어 노트 작성의 유의점

- 아이디어 노트 적기의 핵심은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집적하는 것이다.
- 아이디어의 길이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고, 아이디어의 지속적 횟수가 중요하다.

- 아이디어의 질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며, 짧은 시간 몰아서 작성하는 것보다 꾸준히 오랫동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은 후 반드시 '메모 날짜'를 명기하게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이를 통해, 꾸준함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유형3: <사색형>

강의 계획 및 운영	
주교재 (고전 제목)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을 시도한다. ■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기와 타자를 이해하고 성찰한다. ■ 자기성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주요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인물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을 선정한다. ■ 해당 인물의 삶을 프로필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인물의 삶을 구체화한다. ■ 해당 인물과 자신의 대비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 수행한 모든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글쓰기'를 시도한다.
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은 다음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① 작품 읽기 - ② 질문하기 ③ 인물 탐색 - ④ 인물 선정 - ⑤ 인물의 삶 정리 - ⑥ 자기 생각 정리 - ⑦ 자기성찰 글쓰기 </div> ■ 세부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 읽기 : 작품을 읽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의 어떤 판본이든 상관없다. - 평가를 위하여 다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생략도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단한 퀴즈 실시(단답형 5문제 이내) ② 2분 발표(인상 깊은 내용 포함 개인 발표 or 쪽글 제출) (2) 질문하기 : 고전 작품을 읽으며 든 다양한 질문 생성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가 고전 작품을 읽으며 든 의문점을 질문 형식으로 5가지 이상 만들어 보게 한다. - 질문은 인물뿐만 아니라 상황, 배경, 서사 등 모든 것을 열어둔다. - 학습자는 자신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본다. - 학습자는 자신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에 답을 적도록 한다. - 이때, 답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답일 수도 있고, 복수의 답일 경우가 더 활동 효과에 긍정적이다. -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할 필요도 없다. (*제출한 질문 수에 반 정도 답을 하면 된다) - 질문에 정답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다. (*자기 생각만 가볍게 정리하듯 답하면 된다) -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학습자 스스로 정리해 제출하게 한다. -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인물이 작품 속에 존재함을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이 처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에 따라 평면적 상황을 입체적 상황으로 살려 보게 된다. - 궁극적으로 인물과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며, 이를 학습자 스스로 정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와 타자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하게 된다.

강의 계획 및 운영

- (3) 인물 탐색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게 한다.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 개인이 작품 속에 인물을 적어도 ‘5명 이상’ 찾아 제출하게 한다.
 - 이를 학습 시간에 전체 단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앞에 전부 적도록 한다.
 - 관건은 ‘최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시:

<춘향전>의 경우 : 춘향, 변학도, 이몽룡, 월매, 향단, 방자, 포졸, 심부름꾼, 마을 사람들 ...

<홍길동전>의 경우 : 홍길동, 홍판서, 홍판서 부인, 홍판서의 장자, 춘섬, 곡산노 초란, 자객, 포도대장, 임금, 활빈당 줄개, 마을 사람들 ...

<흥부전>의 경우 : 부, 놀부, 놀부 처, 흥부 처, 흥부 자식들, 동네 사람들, 사또, 제비, 박에서 나온 사람들 ...

- (4) 인물 선정 : 찾아진 인물들 중에서 학습자 스스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가 여러 명을 선정하겠다고 할 경우, “더 맘에 끌리는 인물을 고르라”는 식으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
 - 복수의 인물을 고를 경우, 학습자의 내면은 빠지고, 그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만을 도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활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 그러므로 반드시 ‘한 명’을 고르게 한다.
- (5) 인물의 삶 정리 : 그 인물의 ‘욕망’, ‘소신’, ‘의지’, ‘삶의 자세’, ‘행동의 이유와 근거’, ‘인생의 가치와 지향’ 등 그의 삶을 정리해 보게 한다.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문장식, 혹은 개조식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프로필화를 시도한다.
- (6) 자기 생각 정리 : 앞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자기 생각’과 ‘그 인물의 삶에 대한 감상’을 적어 보게 한다.
- ‘개인’ 단위 수행
 - 이때는 반드시 문장으로 서술식 글로 적도록 한다.
 - 끊어지는 방식의 단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글들이 결국 최종적인 ‘자기성찰 글쓰기’에 담기게 되며, 비록 해당 글을 그대로 담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생각은 충분히 담김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인지시킨다.
 - 자기 생각 정리가 어려워 하는 경우, 교수자가 깊이 간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질문 형식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시:

“만약, 당신이 그 ~~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 ~~에게 조언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그 ~~이/가 처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7) 자기성찰 글쓰기 : 앞서 수행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깨달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기성찰 글쓰기’를 쓴다.
- ‘개인’ 단위 수행
 - 학습자는 “앞서 수행한 모든 것을 담으려 하지 말라”는 권유를 해야 하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깊이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준다.
 - 작성 시간과 작성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만, 너무 적은 분량은 피상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하한선만 제시한다.

수업방법
(교수-
학습활동)

강의 계획 및 운영	
수업자료	고전 텍스트(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과제	① 고전 텍스트 읽기 ② 질문 내용 작성 제출 - 5개 이상의 질문을 함 - 자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적어 제출함 ③ 자기성찰 글쓰기 제출

<사색형>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방법 : 질문하기

<사색형>은 스스로 사색하여 고전 텍스트의 인물과 해당 인물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사유하는 방식을 외현화하여 이를 객관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을 거리를 두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성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방법은 '질문하기'이다.

1) 질문하기 방법

(1) 학습자 스스로 고전 텍스트를 읽으면서, (2차 자료를 읽으면서) 든 다양한 질문을 정리하게 한다.

- 내용의 의문점, 인물 행동의 문제점과 의문점, 당대 상황에 대한 궁금증 등 어떤 질문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만들어 오게 한다.
- 적어도 질문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게 한다.

(2) 스스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게 한다.

-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서너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의 답'을 적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인물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 사유가 가능하게 된다.
- 이때, 중요한 점은 고전 작품의 올바른 정답 찾거나 분석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의 활발함을 유도해야 한다.

(3) 해당 질문과 자기 답변을 정리하여, 해당 상황과 인물에게 권유하기를 시도한다.

- 교수자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학습자 스스로 해당 인물에 대해 이입하여 공감, 부정, 대응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입장과 상황에 대해 권유하는 시각을 견지하게 된다.
- 교수자가 '만약에 ~~라면'과 같은 식의 새로운 상황 제시나 인물에게 대한 충고를 학습자에게 적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하기 과정이 인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고, 대상이 처한 상황에서의 활동 방법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 결국, 자기성찰 글쓰기에 접근하는 내용과 글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활용 팁과 유의점]

-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 셋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학습자의 결과는 ‘개인적’이어야 하므로 ‘혼자서 쓰는’ 글쓰기여야 한다.
 - 어떤 유형이든 궁극적 목적은 ‘자기성찰’이고, 자기성찰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 선택한 유형에 따라 공동 활동은 가능하나, 절대 공동과제는 안 된다.
 - 어떤 경우든 결코 고전 작품의 이해나 감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 세 유형 중 자기성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 순이다.
토론형 < 자료 독서형 < 사색형
- 세 유형에서 각기 사용했던 ‘토론 방법’, ‘아이디어 노트 쓰기’, ‘질문하기’는 다른 유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각 방법은 각 유형에 가장 적합하지만, 학습자들의 상황과 수업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다른 유형에도 적용 가능하다.
 - 또한, 각 유형에 한 가지의 방법만 적용하지 않고, 복수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이를테면, <토론형>이지만 ‘토론문 작성’보다는 ‘아이디어 노트’를 활용하게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 있고, ‘토론문’과 ‘아이디어 노트’를 병행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질문하기’ 역시 함께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너무 많은 활동은 학습자들이 본 교과목의 목적인 ‘자기성찰’보다 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결국,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교과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1)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 중 택1 : 한 학기 구성
 - ① 선택한 유형에 따라 해당 방법을 한 학기 동안 차근차근 활동
 - ② 선택한 유형에 다양한 방법(토론문, 아이디어 노트, 질문하기)을 순차적으로 활동
 - 이때 각 방법마다 서로 다른 작품(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을 읽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 중 복수 선택 : 한 학기 구성
 - 이때는 서로 다른 작품을 읽게 하고, ‘자기성찰 글쓰기’ 역시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좋다.
 - 3) <토론형>, <자료 독서형>, <사색형> 중 택1 : 특정 교과에 부분 구성
 - 이때는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습자 입장에서 부담이 많을 경우 자기성찰이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과제 성격의 표현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V | 학습 및 평가활동 내용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실제 적용 사례	
적용 유형	유형3: 〈사색형〉
시기	2024년 1학기
대상	서울 소재 대형사립대학 〈글쓰기〉 교과(필수) 수강생 (*독립 교과 개발 이전으로 유관 교과에서 수행)
인원	28명 정원 x 3 분반 = 84 명
학습 과정 및 결과 평가 분석	<p>1) 고전 읽기 등 활동 않고 글만 쓴 경우 (20%)</p> <p>① 엉뚱한 내용만 씀 (10%) - 이야기 분석, 자기 소개 반복 - 피상적 수준</p> <p>② 나름 자기성찰 취지에 맞게 글을 씀 (10%) - 깊이 있는 자신에 대한 통찰이 부족 - 결국 피상적 수준의 회고, 결심 등 반복</p> <p>→ 읽는 등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기성찰 글’을 쓸 수 있다. -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익숙하고 쉬운 고전 작품을 선정하는 것임. - 다만, 심도 있는 통찰,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등의 깊이는 부족함 ex) 춘향의 기다림, 길동의 성공, 흥부의 선함 등</p> <p>결국 : 반드시, 읽기 등의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게 해야 함</p> <p>2) 고전 읽기 등 활동 하고 글을 쓴 경우 (80%)</p> <p>① 자기성찰 취지에 벗어난 글을 씀 (20%) [이유 추정] i) 일련의 활동을 하긴 했으나 주의를 기울여 하지 않음 ii) 자기방어 기제 발동 iii) 점수라는 압박에 따른 외적 글쓰기 방법 혼용</p> <p>② 자기성찰 취지에 맞게 글을 씀 (60%) - 고전을 바르게 분석·이해하고, 자신에 적용한 경우 (50%) - 고전을 바르게 분석·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 적용한 경우 (10%)</p> <p>→ 고전 이해가 목적이 아님으로 바르게 분석·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음 - 문학의 다양성과 중층성 - 인간 본연의 다기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의미 있음</p>
결과 평가	<p>- 전반적으로 글쓰기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자기성찰이란 점에서는 진지했음 - 대부분 학습자들은 해당 과정을 유익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겼음</p> <p>- 몇몇 의도적 회피의 경우를 보면 i) 분석이란 시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숨어 버림 ii) 타자의 시선 속에 자신을 감춤 ii) 전혀 엉뚱한 것을 함</p> <p>- 회피 등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피하기는 했어도 ‘자기성찰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지점임.</p>
운영의 특이점	<p>■ 본 강의에서 시도한 몇 가지 주안점</p> <p>①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기초에 ‘자기 소개 글쓰기’를 쓰게 했음 - 이는 본 성찰 글쓰기 과정이 앞선 ‘자기 소개 글쓰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아울러 앞선 ‘자기 소개 글쓰기’와는 다른 글을 써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임.</p> <p>② 수업 시간에 글을 쓰게 하지 않고, 과제로 써서 제출하게 했음 - 시간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 있게 사색하도록 유도함 - 필요하다면 다양한 자료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p>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실제 적용 사례

■ “춘향의 어머니는 월매다” (작곡과 ○○○. 여)

(전략) 월매와 춘향의 사이를 그려보며 난 나와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다. 나는 교제한 지 4년이 넘은 남자 친구가 있는데, 내가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고, 남자 친구는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는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사람이라 각자의 부모님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번도 싸우지 않았을 만큼, 너무 잘 맞고 시간이 더 흘러 결혼할 때가 되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입장이었다. 나는 솔직히 딸 가진 아빠라 그냥 남자 친구 존재 자체가 싫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남자 친구의 출신 대학 때문이었다.

그동안 나를 이해 못 해주던 아빠를 닮아가기만 했던 내가 너무 반성이 됐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나도 나 자신만 생각하느라, 나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

비록 아빠가 마트 하나 없고,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출신 대학만 보고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아빠 입장에서는 첫째 딸이 따지고 따져 좋은 남자 친구와 남편을 만나기를 바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화난 아빠한테 맞서 화만 내던 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반성이 되었다.

물론 춘향전의 경우는 이야기지만, ‘월매의 마음도 우리 아빠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춘향전을 어렸을 때 고전 명작이라 읽었을 뿐이지 커서 다시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읽어 보니 지금 나의 상황과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하락)

■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연애를 못 하는가?” (철학과 ○○○. 여)

나는 평소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호방하다’ ‘자신감 있다’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는 평을 듣고는 한다. 아마 내가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주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생긴 감상인 듯하다.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평을 들을 때, 참 감사했다. (중략) 나 또한 자신이 어떤 실패를 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자신감 있으며, 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 가지 분야에서만 빼면 말이다.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다.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나름 ‘인간관계 고수’로 불리는 내게 정말 어려운 한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면 바로 연인 관계이다. 나는 누구를 나의 단 하나뿐인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중략)

〈춘향전〉 속 춘향은 자존감으로 가득 찬 여성이다. 기생의 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글공부에 매달리고, 자신을 섬기라는 몽룡의 첫 제안에도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거절한다. 더 나아가, 변 사또의 강압적인 요청에는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춘향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거의 정반대나 마찬가지다.

내 사랑의 단계는 이렇다. 평소에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외면하고 피한다. 그러다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관심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다가서지 않는다.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티 내지 않고, 그 사실을 들키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한다. 점점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신경이 쓸린다. 좋아하는 마음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부정하려 한다. 그 사람을 ‘덜’ 좋아해 보려고 그 사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한다. 만약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해줘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비교하며 내 사랑을 억누른다. 연애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나의 연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일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한다.

(중략) 춘향은 ‘사랑하는 자아, 여성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매력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확신을 가진다. 춘향전을 읽으며 느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아, 여성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존감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거절해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거절했던 춘향과는 달리 나는 누군가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좋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워 매번 무조건 그들을 거절했다.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나의 안목을 믿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 계속해서 의심했다.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게 할까 마음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을 때, 한 마디로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한 나체가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잠재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

춘향은 여유가 있다. 연인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준에 대한 확신, 사람을 보는 자신의 안목에 대한 확신, 거절당한다고 해도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 점이 춘향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든다. 왜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서지 못하는가? 왜 나의 연인을 끝없이 의심하고 평가하는가? 왜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연애를 못하는가? 그 해답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나는 나체가 될 결심을 해야 한다.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나는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춘향을 보며 생각한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고쳐 생각해 보려 한다. ‘나는 나체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 “춘향전”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남)

춘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랑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이몽룡에게는 순종적이고, 관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변 사또에게는 저항하고 도덕적인 모습들을 보이며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춘향처럼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학습자 실제
결과물 예시
(부분 인용)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실제 적용 사례

확실히 말과 행동을 보이며 오해와 불상사가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나 관계에서 그 무엇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에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연예인과 일반인이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이 돈도 더 잘 벌고 그러겠지만 결국 서로가 얼마나 잘 맞고, 마음이 맞나 안 맞나에 중점이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사례처럼 그 편견을 깬 이야기가 존향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존향전을 내가 하고 있는 축구에 빗대어 말해보려고 한다. 존향이와 이몽룡이 첫눈에 보자마자 반한 것처럼 나도 축구공을 처음 만졌을 때 다른 스포츠 종목들과 다른 느낌을 받았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구가 좋게 되었고, 친구들이 축구부(운동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나는 상황이 어려워졌고, 처음에는 나도 힘든 선택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남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설득해 보고 주변에서도 내가 축구선수에 길로 갈 수 있게 많이 지지해 주셨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내 몸속에 있는 작은 아이가 속삭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축구라는 단어는 실망, 반항 등 인생의 일부를 바꿀 만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략)

■ “21세기형 존향이 되는 법” (정치외교학 ○○○. 여)

고전 작품 〈존향전〉의 주인공 존향은 목숨을 걸고 수청을 들라는 변사또에 저항하고 정절을 지켰다. 이는 이몽룡을 위해서도, 정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라는 자신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다. 존향은 지금보다도 훨씬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시기에, 심지어 기녀라는 낮은 신분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살았지만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성격 자기결정권이라는 21세기적인 가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주체적인 여성상인 존향의 삶을, 21세기에 사는 여성인 나의 삶과 비교하며 내 삶을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돌아보고 성찰하겠다.

존향과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주체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내가 한 모든 선택들은 내가 원해서 했다. (중략) 지금도 전공 수업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외과에 온 것은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국제적인 것에 대한 선호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국제변호사를 꿈꿔왔고, 이 꿈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존향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존향에 비해 주체성이 모자란다고 느꼈다. 나와 존향의 주체성은 다르다. 왜일까? 둘 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는 했지만, 존향은 정말로 순수하게 본인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내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의 주체성이다. 특히 존향은 신분제라는 사회 분위기와 상반되는, 저항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학벌과 전문직을 중시하는 사회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략)

그렇다면 나는 존향이처럼 주체성을 회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까? 현대 사회에서 존향만큼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없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 환경 운동가나 자신의 명확한 소신을 가진 정치인 등이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을 나는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나는 소시민이다. 나는 존향이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지향을 위해 저항할 정도로 큰 배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 (중략) 그리고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원했기에,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나는 이처럼 나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자신다움이다. 그리고 나도 마냥 사회에 순응하고 있지만은 않다. 내가 가장 소중하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 미래는 내가 정할 것이다. 완전한 의미에서 나는 21세기의 존향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를 반만이라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함이나 사회의 압박보다는 자신을 중시하는 선택을 한 존향이의 주체성을 새긴 채로 앞으로 살아가려 한다.

■ “욕망의 그래프에는 도착점이 없다” (경제학 ○○○. 남)

축구선수, 외과의사, 경제학 교수, 이는 내가 꿈꾸어 왔던 직업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열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의 희망직업이 경제학 교수는 아니다. 그 목표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지워졌기에 과거의 희망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현재의 내 인생 그래프의 이름 란은 공백 상태이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게다가, 그 그래프의 x축에 시간을, y축에 성취도를 대입했을 때, 나는 현재 (0,0)에 머물러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그래프의 이름이 없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머무른다는 표현보다는 갇혀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중략)

복학을 한 현재에는 (중략) 과거의 인생이 모두 부정된 것만 같다. 결국,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어느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과거에 있던 값들은 그래프가 사라지면 그저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나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 그래프가 바뀌지 않으며 모든 값들이 항상 축적되어 그래프가 상승했던 고전 소설 속 인물이 있는데, 바로 홍길동이다.

그는 비록 출생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냈다. 그에게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의 의지나 소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또한, 홍길동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 그래프를 지우고 새로 쓰는 과정이 아닌 축적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나갔다. 즉, 목표 달성이 그래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점이 되는 것이지, 그 점이 그래프의 마지막 결과값이 아니라는 의미다. 홍길동과 나의 그래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점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먼저,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중략)

다음으로, 나의 목표 간 개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중략)

마지막으로, 홍길동이 개인적 목표가 아닌 ‘대의’를 추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체 어떤 것일까? 등잔 밑이 너무 어두웠던 것일까, 정답은 너무도 가깝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있었다.

학습자 실제
 결과를 예시
 (부분 인용)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실제 적용 사례

학습자 실제
결과물 예시
(부분 인용)

노력, 능력, 개연성처럼 대소 비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나 욕망을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중략) 홍길동의 경우, 명확히 그의 목표를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으로 적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나의 목표와 같은 특징을 지닌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홍길동은 과정에서 어려움이거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인 실패는 없으며, 하나의 과정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넘어갈 경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이 모두 축적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나의 그래프들은 홍길동의 그래프처럼 '가치'가 아닌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에 대해서만 그려왔던 것이다. 홍길동처럼 추구하는 가치를 나 자신으로부터 발견한다면, 과거의 그래프들이 다시금 축적되어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중략) 그래프의 이름에 '가치' 대신 '가치를 달성하는 수단'만 적었던 과거의 나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고, 비록 그래프가 사라짐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각각의 그래프 위를 최선을 다해 걸었던 자신에게 오히려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욕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욕망을 위한 무한한 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길 위를 걷고, 쉬고, 뛰어보자.

■ “잘해야 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의 차이” (영문학과 ○○○. 여)

나에게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바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제를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검토를 하지 않아 늘 오탈자를 낸다. 시험을 공부할 때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준비해 놓고 마지막 3시간쯤 되면 그냥 핸드폰을 하거나 엎드려 자며 "난 포기했어."라는 말을 달고 산다. (중략)

이런 비합리적 신념 뒤로 숨은 나는 꽤 오랜 시간 신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또 두려웠다. 잘해야만 한다는 말은 사실 삶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만 나의 경우에는 게으름에 대한 특정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과목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수업이 재밌거나 유의미해도 내가 그 수업에서 A+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철학을 해버리는 등 회피했다. (중략)

'잘해야만 해'라는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출발하여 내가 도착한 곳은 흥부와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태도이다. 어른들은 성실한 하루가 모여 대단한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든 일등을 하고 싶은 내게 자잘한 실패와 좌절은 그저 낭비처럼 느껴지기만 했다. 여러차례 실패하고 좌절해서 차근차근 인생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을 오만하게도 바보같다고 생각했다. (중략)

'잘해야만 해'와 같은 신념에 갇혀 살던 나는 최근에서야 '왜 잘해야만 할까?'와 같은 논박을 시작했다. 잘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 한 곳 차이 같지만 잘하고 싶다는 이러한 결심은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 나를 목적으로 데려다 줄 뿐 아니라 늘 목적을 상기시키는 신념이 되지만 '잘해야만 해'는 좋은 결과와,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강박적인 자기 검열에 집착하게 한다. (중략)

이러한 나의 생각들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기 너무 쉽다. 단순히 물리적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흥부전의 뒷이야기가 있었다면 흥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밖에서 얻은 금은보화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체면을 중시하고 자잘한 노력으로 삶을 유지해 본 적 없는 흥부는 아마 어쩌면 다시 가난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는 나의 결말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잊은 채로 체면만 중시하는 나, 과정에서의 실패가 무서워 일확천금만 노린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흥부전을 읽는 동안 얼핏 보였다. 나 역시 이렇게만 살다 간 나의 목적이 어딘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죽어 구천을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잊은 채로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삶,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해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삶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놀부네에서 매를 잔뜩 맞고 그 매에 취해 터덜터덜 걸어오는 흥부가 보였다.

이 글을 작성하며 이제는 정말로 현실적인 목적을 세워야 함을 느낀다. 거대하고 욕심만 가득 찬 목표가 아닌,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목적 삼아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싶어졌다. 2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나는 놀부 흥부 형제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삶을 부모가 책임져주지 않으며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쳐야 한다. 그렇기에 현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성실히 발을 매고 물건을 파는 성실한 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인생에 한 번 다리 부러진 제비가 가져다준 박이 터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복을 잘 굴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재현,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찰실 운영을 위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 구안」, 『독서 연구』28, 한국독서학회, 2012, 177~198쪽.
- 김경진, 「대학생의 독서활동과 창의·융합역량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26(5), 한국청소년학회, 2019, 391~412쪽.
- 김영학,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고전읽기 수업모형 연구」, 『한민족어문학』86, 한민족어문학회, 2019, 9~48쪽.
- 김지형, 「5분 스피치」의 자기 성찰과 치유적 효과」, 『사고와표현』12(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09~134쪽.
- 김태웅, 「자아성찰 글쓰기」를 통해 본 대학교양교육의 목적과 의미」, 『국제어문』76, 국제어문학회, 2018, 439~466쪽.
- 김태웅 · 박인우, 「실시간 온라인 토론 수업에서 참여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교육방법 연구』20(2), 한국교육방법학회, 2008, 1~20쪽.
- 김효주, 「대학생의 자아 성찰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구운몽> 교육」, 『문학치료연구』30, 한국문학치료 학회, 2014, 257~289쪽.
- 민웅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문학 기반 대학 교양교육 지식체계에 대한 성찰적 고찰」, 『인문과학연구』41,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75~198쪽.
- 박소연, 김한별, 「대학생의 저널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경험 분석」, 『교양교육 연구』6(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53~178쪽.
- 박진, 「자기성찰과 성장의 은유로서의 독서치료 텍스트」, 『독서치료연구』16(2), 한국독서치료학회, 2024, 91~110쪽.
- 송선희, 「찬반 논쟁 협동학습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교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22(2),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103~119쪽.
- 안현호, 「통합인문 교양교육에서 고전교육」, 『교양교육연구』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99~123쪽.
- 안혜령, 「자화상 시 창작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성찰 양상에 관한 연구」, 『선청어문』50,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2022, 355~385쪽.
- 양수연, 「대학생의 성찰적 글쓰기에 나타난 내러티브적 의미 구성의 양상과 교육적 함의」, 『사고와표현』16(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3, 117~152쪽.
- 우남희, 「수용적 독서와 표현적 글쓰기를 통한 자가치유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17(1), 부경대학교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2016, 111~140쪽.
- 이봉희, 「글쓰기 치료: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새국어교육』8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339~360쪽.
- 이소현,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글쓰기 연구」, 『언어와문화』14(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8, 217~241쪽.
-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50, 한국 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69~189쪽.
- 이영미, 「웹 기반 토론에서 반성적 사고 능력 촉진을 위한 질문생성 전략의 적용 효과」, 『교육방법연구』18(1), 한국교육방법학회, 2006, 95~117쪽.
- 임연정, 「고전읽기 교과목의 토론 방식 고찰」, 『교양교육연구』1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71~85쪽.

장민경 · 이현우, 「토픽 모델링 기반의 시각적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의도 분석: 온라인 토론 학습에서 성찰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35(1), 한국교육방법학회, 2023, 155~174쪽.

전우형, 「자기표현의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교양교육의 효과」, 『어문연구』4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417~441쪽.

채수은, 「논쟁 중심 교육방법과 논쟁 지지 정도 결정요인 -통합교육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28(2), 한국교육방법학회, 2016, 257~279쪽.

최애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읽기」, 『한국어문교육』3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107~128쪽.

최옥, 「교실 및 온라인 토론수업을 위한 준비 교수체제 설계모형 개발」, 『교육방법연구』29(4), 한국교육방법학회, 2017, 677~705쪽.

표정옥, 「대학 교양교육의 융합적 상상력을 위한 고전 활용의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교과 연구」, 『교양교육과시민』2, 숙명여대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0, 47~74쪽.

한래희, 「자기 피드백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사고와표현』12(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47~182쪽.

2024년도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모듈 개발 최종 보고서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